

“휠체어 수리 통해 노숙인 자립능력 키운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제공 금정희망의집



노숙 생활을 청산한 6명의 '기술자'가 장애인복지기관과 요양원 등으로 출장 수리를 다니는 희망 담은 휠체어수리센터. 센터를 알차게 운영한 금정희망의집은 아산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수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무원이던 신광식(가명·48) 씨는 주식투자 실패 등을 겪으며 직장을 그만두고 부인과도 이혼했다.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한 후 노숙 생활을 하다가 2016년 9월 부산시 서동에 자리한 노숙인 자활시설 금정희망의집(원장 최주호)에 들어왔다. 입소 후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희망의 바퀴를 달자' 사업에 참여했다. 노숙인에게 휠체어 수리기술을 가르쳐 자립능력을 키워주려는 이 사업은 2017년 7월부터 아산재단이 지원하면서 박차가 가해졌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희망 담은 휠체어수리센터'(이하 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매달 70만~80만 원을 저축한 그는 2017년 '부산시 저축 우수 노숙인'에 선정됐다. 10건 중 9건이 출장 수리인 센터에서 부산만이 아니라 밀양과 양산, 김해 등의 장애인복지기관과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땀 흘린 결과였다. 이제 그는 센터보다 임금이 더 많은 금사공단의 공장에서 일하게 됐고, 임대주택에도 입주했다.

2017년 6명의 노숙인이 참여한 휠체어 수리 사업은 2018년에도 아산재단의 2차 지원이 결정돼 다시 6명이 일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에게 꼭 필요한 휠체어는 수리가 마땅치 않다. 원래는 의료기기 수리 면허를 받은 곳에서만 고칠 수 있는데 이런 곳이 드물고, 정식 AS센터는 수리비용이 비싸서 자

전거 수리점 등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블루오션을 개척한 금정희망의집은 2017년 7월~2018년 6월, 인건비와 부품 구입비 등을 지불하고도 1,500여만 원의 수익을 냈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기백(33) 금정희망의집 사무국장은 "휠체어가 수리되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무척 기뻐한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기술자'들은 큰 보람을 느낀다. 경제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이 사업의 큰 장점이다. 금년에도 아산재단이 지원해 준다면 여성 노숙인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12월 문을 연 금정희망의집은 사회복지법인 자성(이사장 이필숙)이 부산시로부터 수탁운영 중이며, 20~70대 노숙인 38명이 생활하고 있다. 1층은 사무실, 2~3층은 2층 침대가 놓인 생활실, 지하는 식당으로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직원은 6명이다. ▲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600여 사회복지단체에 54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